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생활 갈등상황 해결에서의 도덕지향에 관한 연구

백 혜 정

동덕여대 BK21 아동교육연구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 60명(대학생 40명,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갈등상황 및 그 상황에서의 판단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이 직접 경험한 갈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상황에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Gilligan이 주장한 배려지향과 공정성 지향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지향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각 지향에 속하는 하위 범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이 실제 경험한 갈등상황은 크게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상황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그들이 주로 경험하는 공통된 갈등상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지향 선택에서의 성차는 보이지 않았으며 개인들이 선택한 지향은 대학생과 공무원 집단 모두에서 배려 지향이 더 많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갈등상황에 따른 지향 선택을 살펴보았을 때 공무원 집단과 대학생 집단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향에 속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하위 범주들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지향 안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하위 범주들도 대학생 집단과 공무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연구자는 문화적 영향 및 갈등 상황, 집단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주요어 : 도덕지향, 배려지향, 공정성 지향, 갈등 상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중심으로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Kohlberg 및 Gilligan의 도덕지향(moral orientation)

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각 개인이 경험한 갈등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지향했던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써 우리나라 성인들의 갈등상황 해결에서의 지향선

택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개인은 때때로 다양한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경우 각 개인들은 그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며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바를 고려하여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Kohlberg의 가상적 상황에서의 도덕적 갈등에 대한 추론 연구는 이러한 갈등상황에서의 지향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표준화된 가상적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추론 반응을 바탕으로 그들의 도덕 발달단계를 측정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이 선호하는 도덕지향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Kohlberg(Colby & Kohlberg, 1987)는 도덕지향을 도덕적 영역을 구분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이나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the orientations of upholding normative order)으로 이는 합법과 규칙에 의해 정해진 의무와 정의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이기적 결과 지향(the orientation of egoistic consequences)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의 정도 또는 자신에 대한 평판을 중요시 하여 이루어진 판단을 의미한다. 셋째, 공리적 결과에 따른 판단(the orientation of utilitarian consequences)은 자신이나 타인, 또는 양쪽 모두의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공리적 결과 지향은 이기적 결과 지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넷째, 이상적 또는 조화 기여적 결과 지향(the orientation of ideal or harmony-serving consequences)은 타인의 승인과는 무관

하게 자신의 양심, 동기, 존엄과 자율, 덕행 및 타인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판단을 의미한다. 다섯째 공정성 지향(the orientation of fairness)은 자유, 평등, 공평,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 등을 지향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이다. Kohlberg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덕지향들 중 공정성을 지향하는 판단이 최선의 판단인 것으로 믿었으나 그에 대한 실증 연구가 충분히 하지는 않았다.

도덕지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Gilligan(1982)이 성별에 따른 도덕지향의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낙태의 딜레마를 겪는 여성들을 면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Kohlberg의 이론은 정의, 공평과 권리를 주요 지향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남성 위주의 이론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은 남성과 달리 배려, 감정 이입과 인간관계 등을 지향하는 도덕 판단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주장을 바탕으로 그는 도덕지향을 크게 공정성 지향과 배려 지향,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그중 공정성 지향은 정의, 공평, 원리와 기준의 유지 및 권리를 우선시 하는 판단으로 남성이 선호하는 지향이며, 배려 지향은 배려, 보살핌, 감정이입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판단으로 여성이 선호하는 지향이라고 각각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Gilligan의 지향과 Kohlberg의 것을 비교해보자면 Gilligan의 공정성 지향은 Kohlberg의 지향 중 원리원칙이나 규칙들과 관련이 있는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 및 공정성 지향과 유사하며 배려 지향은 인간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이기적, 공리적, 이상적 결과에 따른 지향들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Walker, 1989). 또한 Gilligan에 따르면 Kohlberg의 체점방식으로는 배려를 지향

하는 여성의 도덕판단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Kohlberg의 도덕판단 이론이 공정성 지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남성 위주의 이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Gilligan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Daniels, D'Andrea, & Heck, 1995; Garmon, Basinger, Gregg, & Gibbs, 1996; Gibbs, Arnold, & Burkhart, 1984; Gilligan & Attanucci, 1988; Johnston, 1988; Walker, 1989)이 도덕지향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으나 결과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들은(예: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 Lyons, 1983)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공정성을, 여성들은 배려를 더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함으로써 Gilligan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한 예로 Lyons(1983)는 8세에서 60세 이상까지의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그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도덕적 갈등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배려 지향은 여성의 75%에서, 정의 지향은 남성의 79%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화를 도구로 사용한 Johnston(1988)의 연구에서도 도덕지향에 있어서 성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일련의 연구결과(예: Daniel et al., 1995; Gilligan & Attanucci, 1988; Walker, 1989)들을 살펴보면 도덕지향에 있어서 성차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Gilligan과 Attanucci(1988)는 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도덕판단에 있어서 여성은 배려지향을, 남성은 공정성 지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 대상자의 3분의 2 이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두 가지 지향을 모두 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yons의 연구방법을 그대로 성인에게 적용하여 도덕지향에서의 성차를 지지한 Pratt(1985, Walker, de Vreis, & Trevethan, 1987에서 재인용)의 연구의 경우, Walker와 그의 동료들(1987)은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성차는 순수한 성별에 의한 차이이기보다는 딜레마에 의한 차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Pratt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딜레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자대상자들은 관계적 상황에서의 딜레마를 더 많이 보고한 반면 남자들은 비관계적 상황에서의 딜레마를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Walker 등은 이러한 딜레마 내용에서의 차이와 연관지어 관계적 상황에서는 배려지향을, 비관계적 상황에서는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Pratt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향사용에서의 차이를 성별에 따른 차이로만 보기는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Walker(1989)는 5세에서 63세까지 23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기초하여 Kohlberg의 도덕지향 뿐 아니라 Gilligan의 도덕지향에서도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도덕지향에서의 차이는 성별보다는 오히려 딜레마의 종류에 따라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공정성을,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배려를 더 많이 지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실생활 딜레마에 대한 지향을 분석해 본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친밀 정도가 지향사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상황에서는 배려를, 공적인 사건이나 그다

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상황에서는 공정성을 주로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Daniel 등(1995)은 도덕지향 사용에서도 문화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Johnston(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80명의 도덕지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Johnston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남녀 모두 배려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알로하 정신(aloha spirit)”으로 대변되는 하와이 문화는 친절, 인내 그리고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라며 그러한 문화적 특성이 부분적으로나마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도덕지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 많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역시 도덕지향에서의 성차에 관하여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Baek(2002)은 Kohlberg의 딜레마를 사용하여 한국과 영국의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영국 아동집단과 달리 한국 아동집단에서만 특정 딜레마 1)에서 16세 여자 아동이 같은 연령의 남자 아동에 비해 공리적 결과 지향²⁾을 더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p < .01$).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딜레마에서 고르게 나타난 성차는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백혜정, 이순목, 2002)에서는 약하나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Gilligan의 공정성 지향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지향으로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더 배려 지향적이라는 Gilligan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한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국가나 학교, 가족 등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나 본분이 우선시되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즉 이러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사회적 규범이나 요구에 순응적인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순응적 경향은 특히 여자 아동의 특성상(Feingold, 1994; Maccoby, 1990) 그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연구들은 도덕 지향의 사용이 성별보다는 문화적 영향과 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은 이 연구들이 Gilligan이 제시한 도덕지향보다는 Kohlberg의 도덕지향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로 Gilligan의 도덕지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아현(1998)은 대학생과 성인들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실생활 딜레마를 분석하여 Gilligan의 도덕지향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도덕지향의 차이가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성은 공정성 지향적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기 관련 딜레마일 때보

1) 성차를 보인 딜레마는 Joe's Dilemma로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권위와 부자간의 약속을 주 갈등내용으로 담고 있다.

2) Kohlberg의 공리적 결과 지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Gilligan의 배려 지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는 타인관련 딜레마인 경우에 더욱 공정성 지향적인 판단을 선호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자기 관련과 타인 관련, 두 딜레마에서 모두 배려 지향적인 판단을 선호하였다.

또한 정미연과 정옥분(2001)도 고등학생의 도덕성 연구를 통해 도덕지향에서의 성차를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배려 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공정성 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배려 지향적 도덕성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도덕지향에서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학생 집단이 배려 지향 뿐 아니라 공정성 지향 도덕성 수준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는 배려와 공정성 지향의 선호에 차이가 있는가를 본 연구라기보다는 각 지향에서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이므로 선호도에 있어서 성차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접근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도덕지향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각기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또한 도덕지향사용은 성별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 그리고 경험한 갈등 상황 및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갈등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나타난 도덕지향이 성별이나 갈등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 대

상자들로 선정된 성인들은 크게 대학생 집단과 공무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두 집단은 일상 활동영역이나 관심사, 직접 경험한 갈등상황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택되었다. 즉 대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관심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사적인 갈등상황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보았다. 한편 공무원 집단은 주로 공적인 상황에서 활동하고 갈등상황을 경험하며 관심사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리적인 것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보았다.

또한 갈등상황에 따른 도덕지향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Walker(1989)의 연구에 기초하여 각 개인이 경험한 갈등상황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상황과 공적인 사건이나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이이현(1998)이 갈등상황에 따른 도덕 지향의 차이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직접 경험한 갈등(자기 관련 딜레마)과 간접 경험한 갈등(타인관련 딜레마)간의 차이를 본 것으로 본 연구의 분류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사적인 상황에 따른 지향사용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 따른 지향사용의 차이가 성별에 따른 지향사용의 차이와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향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각 지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에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무원과 대학생,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행정고시를 통하여 선발되어 현재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총 20명(남 18명, 여 2명)이다. 선발기준은 입직 후 공무원 사회에 문화적 적응기간을 거쳐서 자신의 직무에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행정담당자들로부터 임의로 추천을 받았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30년 6개월(표준편차=40.7개월)이며, 근속연수는 평균 3년 11개월(표준편차=24.1개월)이다. 대학생들은 서울소재 사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중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며 모두 40명(남 23명, 여 17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24년(표준편차=18.4개월)이다.

측정 도구 및 절차

모든 자료 수집은 일대일 개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로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접자나 피면접자 모두 면접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공무원의 경우는 연구자가 찾아간 행정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마련해준 장소가, 대학생의 경우는 학교내 심리학 관련 연구실이 각각 사용되었다. 일인당 면접시간은 평균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된 후 전사되어 채점되었다.

실생활 갈등상황에서의 도덕지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도덕적 갈등 상황이 내포된 사건들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 중 공무원들에게는 대학생 자료에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갈등 상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갈등 상황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겪었는지, 그 갈등 상황과 그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한 행동 및 그 선택 원인 등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갈등 상황의 내용 부분과 지향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갈등 상황의 내용 부분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녹음된 후 전사된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의미 있는 단어, 절, 구를 찾아 밑줄을 긋고 그 중 같은 의미끼리 묶어 분류해 나가면서 공통요소를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자료 범주를 형성하고 여러 범주를 보다 높은 수준의 범주로 묶은 후 각 범주의 공통 요인에 따라 각 범주를 명명하였다. 또한 이렇게 각 범주로 분류된 갈등상황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사적인 갈등 상황”, “공적인 갈등 상황”, “혼합 상황”으로 분류되었다. 사적인 갈등 상황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보여진 갈등상황을 포함하였으며 공적인 갈등상황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갈등상황을 포함하였다. 혼합 상황은 사적인 상황과 공적인 상황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이렇게 범주화되고 명명된 것, 그리고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두 명의 채점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자 하였다.

도덕지향 측정을 위해서는 응답내용 중 갈등상황에서의 행동선택 이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상황을 범주화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배려 지향과 공정성 지향으로 분류하였다. 즉 각 응답내용 중 같은 의미끼리 묶어 분류해 나가면서 공통요소를 찾아낸 다음 자료 범주를 형성하고 여러 범주를 보다 높은 수준의 범주로 묶은 후 각 범주의 공통요인에 따라 각 범주를 명명하였다. 또한 이렇게 각 범주로 분류된 내용들은 다시 서론 부분에서 정의되어진 기준을 바탕으로 배려 지향과 공정성 지향으로 나뉘었다. 간혹 어느 지향에 속하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Kohlberg의 요강(Colby & Kohlberg, 1987)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지향에 따라 분류한 후 이기적, 공리적, 이상적 지향에 속하는 것은 배려지향으로, 규범적, 공정성 지향에 속하는 것은 공정성 지향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체계는 지향정도를 5가지-배려, 배려중심, 혼합, 공정성 중심, 공정성-로 나눈 Gilligan과 Attanucci(1988)의 방법³⁾을 응용하였다. 원래는 본 연구에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지향을 5가지로 분류할 계획이었으나 “배려 중심”과 “공정성 중심”은 해당 인원이 적어 통계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각각 “배려”와 “공정성”에 통합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들을 그 응답성향에 따라 “배려”, “공정성”, “배려/공정성”으로 분류하였다.

3) 각 개인의 응답이 모두 배려 지향 또는 공정성 지향만을 보일 경우에는 “배려”나 “공정성”으로 분류되었으며 응답내용 중 배려지향적(또는 공정성 지향적) 응답이 채점된 전체 응답의 75%이상일 경우는 “배려 중심”(또는 “공정성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향이 모두 75%미만으로 두 가지 지향을 모두 보일 경우에는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4) 두 채점자 모두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채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실제 채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도덕지향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채점자⁴⁾가 독립적으로 채점한 내용에 대해 채점자간 일치도(Cohen의 kappa, SPSS 10.0 for windows)를 측정하였다. 즉 첫 번째 채점자가 채점한 내용 중 무작위로 20개를 선정하여 첫 번째 채점자의 채점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채점자에게 다시 채점하도록 한 후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도덕지향에 대한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 kappa는 .76으로 나타났다.

결 과

본 연구에 참가한 개인들의 갈등상황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들의 갈등상황은 크게 교우관계(이성친구 포함), 학업생활, 가족관계, 동아리 활동 및 아르바이트 등 5가지 장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한 장면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 두 장면 이상이 서로 부딪히며 발생하였다. 갈등상황의 내용에 따라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그리고 혼합 상황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의 상황이 14건, 17건, 9건으로 경험의 비율 면에서 볼 때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즉 많은 대학생들이 공적인 갈등 상황과 사적인 갈등상황을 비교적 균등하게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학생이 경험한 갈등상황에 대한 분류

상황 분류	구체적 갈등장면	예
사적 상황 (17)	가족관계 (9)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것인가 동생을 위해 쓸 것인가
	교우관계 (6) 교우 vs 가족 (2)	군대간 남자친구 vs 새로운 남자친구의 선택 친구들과 약속된 여행 vs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니 위로해 드리기
공적 상황 (14)	학업문제 (4)	시험공부 및 과제의 기한을 넘기는 문제
	소원한 인간관계 (4)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아르바이트 (2)	다른 직원이 사용한 비용처리 문제
	동아리 활동 (2)	야학강의 vs 학회 모임 중 선택
학업 vs 동아리 (1)	동아리 봉사활동 vs 공부 중 선택	
	기타 (1)	급한 학원등록을 위해 집안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갈 것인가
혼합 상황 (9)	교우 vs 학업 (6)	수업 참여 vs 친한 선배의 부탁 중 선택
	가족 vs 학업 (2)	수업 참여 vs 돌봐줄 사람 없는 작은 아버지의 병간호 중 선택
	가족 vs 동아리 (1)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리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 안은 사례 수

갈등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인 갈등상황(총 17)은 가족관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가 6건, 그리고 가족과 교우의 각기 다른 요구에 따른 갈등상황이 2건 보고 되었다. 공적인 갈등상황은 총 14건 중 학업문제와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각 4건씩,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에서의 갈등이 각 2건씩, 학업과 동아리 활동에서의 갈등 및 기타 금전문제가 각 1건씩 나타났다. 혼합 상황은 교우관계와 학업장면에서의 상충된 요구에 따른 갈등이 6건, 가족관계 대 학업에서의 갈등이 2건, 가족과 동아리 활동의 상반된 요구에 따른 갈등이 1건으로 모두 9건이었다(표 1참조). 또한 경험한 갈등상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즉 남녀 대학생 모두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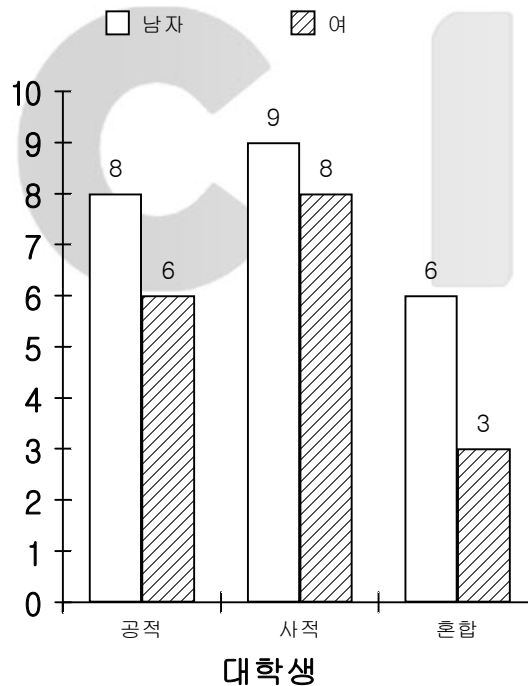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갈등상황

표 2. 공무원이 경험한 갈등상황에 대한 분류

상황분류	구체적 갈등장면	예
사적 상황 (2)	친한 동료와의 관계 (2)	친한 동료의 귀찮은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내 일에 열중할 것인가
공직 상황 (13)	업무 관계 (7)	규제정책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업무 vs 소원한 인간관계(6)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인가 민원인의 사정을 봐줄 것인가
혼합 상황 (5)	동료 관계 vs 업무 (4)	정책 결정에 있어서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상관의 뜻을 따를 것인가
	친구 vs 동료 (1)	타지에서 온 친구를 대접할 것인가 새로 간 부서 회식에 참석할 것인가

()안의 사례 수

갈등을 비슷한 비율로 보고하였다.

공무원들은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모두 직장생활에서 경험했던 갈등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중 업무와 큰 상관없이 친한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모두 2건으로 사적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업무에서 비롯된 갈등상황(7건)이나 업무와 업무관계자와의 상충된 요구로 인한 갈등(6건)은 모두 13건으

로 공직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업무관계와 친분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4건과 친구와 동료사이의 갈등상황 1건은 혼합 상황에 포함되었다(표 2 참조).

성별 및 딜레마 상황에 따른 지향 선택의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지향 선택의 차이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남녀 대학생 모두 배려 지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지향 선호 경향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칸이 20%를 넘어 기본가정에 위배되므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렇게 남녀 모두 배려 지향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남녀 대학생이 경험한 공직 상황과 사적 상황은 비슷한 비율을 보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배려 선호 경향이 성별 뿐 아니라 갈등상황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생 집단에서 상황에 따른 지향선호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짐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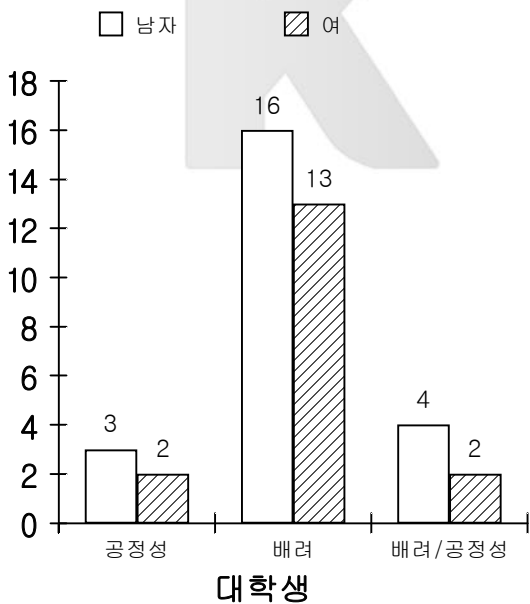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지향 선택

집단의 각 상황별 지향 선택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갈등상황 총 40건 중 공적인 갈등 상황이 14건으로 그 중 배려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11건, 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2건, 배려/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1건으로 다수가 배려 지향을 선택하였다. 또한 사적인 상황(총 17건)에서도 배려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지향과 배려/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각 3건씩이었다. 혼합 상황에서도 총 9건 중 배려 지향 선택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려/공정성 지향이 2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 지향의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모든 상황에서 배려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29건인데 반해 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는 5건, 배려/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는 6건으로 배려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갈등상황에 상관없이 공정성 지향보다는 배려 지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3 참조).

한편 공무원 집단의 경우를 보면 공적인 갈등상황 13건 중 배려 지향 선택과 공정성 지향 선택이 각 5건씩으로 나타났으며 배려/공정성 지향 선택은 3건이었다. 또한 사적인 갈등상황 2건은 모두 배려 지향을 선택하였다. 혼합 상황(총 5건)에서도 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배려 지향과 배려/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가 각각 3건과 2건씩 보고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총 20사건 중 배려 지향이 10건, 공정성 지향과 배려/공정성 지향이 각 5건씩으로 공무원의 경우에서도, 공적인 갈등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 지향을 더 많이 선택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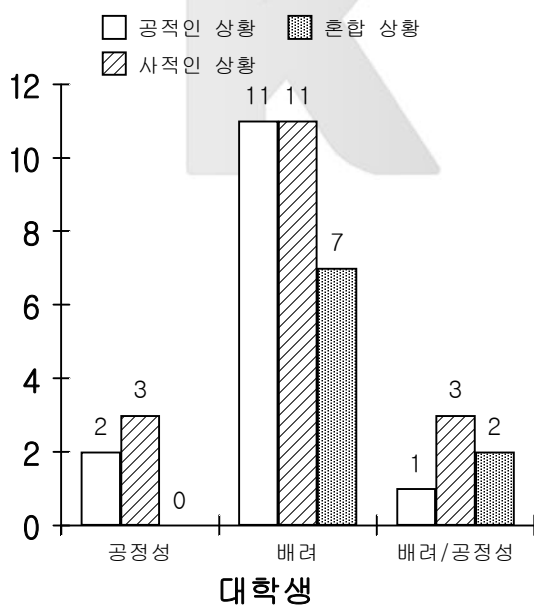


그림 3. 상황에 따른 대학생들의 지향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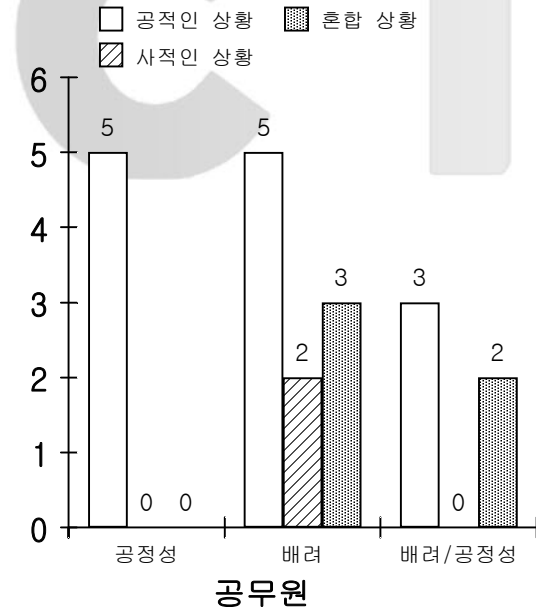


그림 4. 상황에 따른 공무원들의 지향선택

표 3. 각 집단별 지향사용 빈도에 대한 χ^2 검증

집 단	빈 도	배 려	공정성	배려/공정성	합 계	df	χ^2
대학생	획득빈도	29	5	6	40	2	27.65*
	기대빈도	13.3	13.3	13.3			
공무원	획득빈도	10	5	5	20	2	2.5
	기대빈도	6.7	6.7	6.7			

* $p < .01$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배려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각 상황별 지향을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사적인 상황이나 공정한 상황, 혼합 상황 모두에서 배려 지향이 높게 나온 것과 달리 공무원 집단에서는 공정한 상황에서는 공정성 지향과 배려 지향이 동일한 비율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적인 상황이나 혼합 상황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배려 지향이 공정성 지향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각 집단별 지향사용에 있어서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지향사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chi^2(2, N=40)=27.65, p < .01$, 공무원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chi^2(2, N=20)=2.5, p > .2$. 한편 집단에 따른 지향사용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는 지향사용에 있어서 대학생 집단과 공무원 집단간에는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60)=3.02, p > .2$.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 집단 모두 배려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대학생의 경우는 지향사용에 있어서 통

계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차이를 보인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지향의 사용정도에서 보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의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각 상황에 따른 지향사용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안타깝게도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칸이 6개(66.7%)로 기본가정에 위배되어 적용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선택한 지향의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각 지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질적 분석은 응답 내용의 공통요인에 따라 몇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눈 다음 각자의 공통요인에 따라 각 범주들을 명명하였다(표 4).

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갈등상황에서 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6건)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는 책임/의무 이행과 공평성을 고려하였다는 내용이 각 4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배려 지향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학생들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배려(각 15건, 13건)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반면 공무원들은 자신에 대한 배려 내용(1건)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딜레마 내용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분류된 범주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각 범주에

표 4. 각 지향 내용 분석

	하위 범주	공통요인
공정성 (11/6)	책임/의무 이행(6/4)	정서적인 것보다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우선 고려한다.
	공평성 (0/4)	개인이나 집단의 권익을 분배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한다.
	권리 주장/보호(1/2)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상호호혜 (2/0)	이익을 베푼 사람에게 이익을 되돌리는 것이 공정하다.
	정당성 부여 (2/0)	법이나 규범에 의해 옳은 일이라고 정당성을 부여 받은 행동을 고려한다.
배려 (38/16)	자기 배려 (15/1)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정서적 이유에 따라 자신을 배려한다.
	타인 배려 (13/6)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정서적 이유에 따라 타인을 배려한다.
	대인관계 유지(7/3)	개인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고 갈등은 피한다.
	집단의 조화유지(2/3)	집단 안에서 구성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집단의 화목한 분위기를 우선 고려한다.
	공리 추구 (1/3)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우선 고려한다.

(/)안 앞의 숫자는 대학생, 뒤의 숫자는 공무원의 사례 수⁵⁾

속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① 책임/의무 이행

<사례 1 - 대학생, 남>

“학교 수업을 빠지고 작은 아버지를 병간호했어요. (중략) 내가 맡은 가정 내 역할이 있고 나는 이래야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자아상이 있어서.(중략)”

② 공평성

<사례 2 - 공무원, 남>

“공무원 여비규정 해석을 하는데 (중략) 그 사람의 여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을 터줌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중략) 예를 들어 다른 목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다 인정하면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및 넘겨지 못한 국가예산을 고려해서(중략).”

③ 권리주장/보호

<사례 3 - 공무원, 남>

“특허를 내줄 때 평가가 어려운데. (중략) 최대한 민원인의 권리를 등록시켜주어야 하고 동시에 기존 기술모방을 잡아내야.(중략) 그들의 노력, 창작의 권리, 만듦까지의 과정 등을 인정해줘야, 아주 사소한 창작이라도.”

④ 상호호혜

<사례 4 - 대학생, 남>

“모은 돈은 (내 필요에 따라 쓰지 않고) 동생 배낭여행에 보냈죠.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고 동생 여행은 방학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요.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도움 받을 수도 있고(중략).”

⑤ 정당성 부여

5) 총 사례수(75)가 연구 대상자의 인원(60)보다 많은 이유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사례 5 - 대학생, 여>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때문에 헤어질까 고민 많이 했는데 (중략) 결국 계속 만나기로 했거든요. 서로의 감정이 소중한다고 생각했고 또 무엇보다 결혼 같은 것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중략).**”

⑥ 자기배려

<사례 6 - 대학생, 여>

“시험기간 중에 도서관 자리를 맡으면 원래 안되는 건데(중략) 남자친구 자리를 맡아줬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중략) 미안했지만 **남자친구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⑦ 타인배려

<사례 7 - 공무원, 남>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이 내 부하 직원용인지 다른 사람 부하직원용인지 애매모호할 경우 자기 부하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로 안 맡으려는 경향이 있죠. 결국 내 부하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해버렸죠. 직원들은 모두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인지상정이죠. 동물이 자기자식 아끼듯이(중략)**”

⑧ 대인관계 유지

<사례 8 - 대학생, 남>

“약속이 겹쳤는데 (중략) 친구와 만났거든요. 카페(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더 좋지만 **친구가 서운해 하고 친구와 더 정으로 뭉쳐진 관계니까.(중략)**”

⑨ 집단의 조화유지

<사례 9 - 대학생, 여>

“(중략)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결국 부모님

뜻에 따랐어요. 내 자신보다는 부모님이 먼저라는 생각도 들고, 아프시니까요. 또 **가족간에 화목해야. 가족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나만 생각하면 안되겠다(중략)”

⑩ 공리 추구

<사례 10 - 공무원, 남>

“의무를 다하지 못해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중략)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하고. **개인 뿐 아니라 조직,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보탬이 되는 쪽으로 처리해야.**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조직, 국가에 대한 봉사고.(중략)”

이상에서와 같은 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과 공무원들이 실제 경험한 갈등상황을 크게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상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들이 주로 경험하는 공통된 갈등상황이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경험상황에서의 성차는 보이지 않았다. 개인들이 선택한 지향은 대학생과 공무원 집단 모두에서 배려 지향이 더 많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갈등상황에 따른 지향 선택을 살펴보았을 때 공무원 집단과 대학생 집단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향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각 지향에 속하는 하위 범주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었다.

논 의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아래와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각 개인이 경험한 갈등상황을 그 내용에 따라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혼합 상황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공무원의 경우는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업무상황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주로 이야기하였으며 따라서 공적인 상황이 사적인 상황이나 혼합 상황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대학생의 경우를 보면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은 공적, 사적 상황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이는 경험하는 갈등상황이 성별에 따라 다르며 (Walker et al., 1987) 남자는 반사회적 갈등상황을, 여자는 친사회적 딜레마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는 선행연구(이아현, 1998)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 중 이아현 연구와의 비교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갈등상황에 대한 분류방식에 있어서 두 연구 간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으로 분류한 반면 이아현의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갈등상황과 친사회적 갈등상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성별에 관하여 두 연구 간의 결과가 상반된 차이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도덕지향 사용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도덕지향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이아현, 1998) 외에 갈등 상황(Walker, 1989) 및 문화적 영향(Daniel et al., 1995)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개인들은 대학생과 공무원 모두 공정성 지향보다는 배려 지향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배려 지향의 선호는 성별의 차이를 비교해 본 대학생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보여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도덕지향사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예, Daniel et al., 1995; Gilligan & Attanucci, 1988; Walker, 1989)와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갈등 상황에서 남성은 공정성 지향을, 여성은 배려 지향을 더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예, 이아현, 1998;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 Lyons, 1983)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갈등상황에 따른 지향선택의 차이를 본 결과 대학생들은 공적인 상황이나 사적인 상황, 모두에서 배려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향선호의 차이가 성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차이라는, 즉 개인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적인 상황일 때는 배려를 지향하고 공적인 상황일 때는 공정성을 지향한다는, Walker(1989)의 주장과도 상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집단의 경우는 지향선호에 있어서 대학생 집단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공무원들은 사적인 상황에서는 배려 지향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대학생집단과 달리 배려 지향과 공정성 지향을 같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공적인 상황에서의 지향 선호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상황에 따른 차이로 짐작된다. 그들이 경험한 상황을 분석해 보면 같은 공적

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상황은 대학생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공무원들의 경험한 공적인 상황은 주로 직장 상황으로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나 동아리 장면의 상황보다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상황일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상황은 대학생의 상황에 비해 이익집단(Gesellschaft)적 성격이 짙은 반면 대학생의 상황은 공무원의 상황에 비해 공동집단(Gemeinschaft)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간의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지향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무원 집단이 대학생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고 해서 직면상황에 따라 다른 지향을 선호한다는 Walker(198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물론 대학생 집단에 비해서는 Walker의 주장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의 경우 공적인 상황이 사적인 상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향 사용에 있어서는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적인 상황에서도 공정성 지향을 더 선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향 선택에 있어서 두 집단의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른 지향 선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적어도 공적인 상황에서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고려해 보아야 할 연구는 도덕지향 사용에서도 문화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Daniel과 그의 동료들(1995)에 의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하와이에서는 남녀 모두

갈등상황에서 배려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문화적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와이의 문화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 역시 정(情)이나 우리(we)를 강조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황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배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지향 선호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선행 연구와 달리 성별에 따른 지향 선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황에 따른 지향 선호의 차이에 대한 결론을 대학생과 공무원 집단간의 차이로 인해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향 선호에 있어서 문화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은 이후 많은 연구 결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두 지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지향의 하위 범주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생과 공무원, 두 집단간에 지향 선택 이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성 지향을 선택한 경우를 보면, 대학생들은 책임이나 의무 이행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던 반면 공무원들은 책임/의무 이행과 공정성 고려가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배려 지향을 선택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즉 개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많은 지향 선택 이유였던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세운 경우는 한 건도 없

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학생들과 달리 배려 지향 선택의 이유로 공리 추구, 대인관계 유지, 집단의 조화 유지를 같은 비율로 들었다. 이러한 각 지향의 하위 범주에서의 차이는 갈등 상황의 차이 및 집단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갈등 상황의 차이란 대학생 집단이 공무원 집단에 비해 사적 갈등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공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업무에서 비롯된 공무원의 상황과 달리 비교적 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상황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개인에 대한 배려 및 책임/의무 이행이라는 어찌보면 다분히 개인적인 이유를 지향 선택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무원 집단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학생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공정성을 공정성 지향 선택의 하위 범주로 언급했음직하다.

둘째 집단 특성의 차이란 공무원 집단과 대학생 집단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집단을 선택하여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집단의 특성이 도덕지향 사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선행연구(예, Tietjen & Walker, 1985; Walker & Moran, 1991)에서도 이미 보여졌던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집단이 배려 지향의 하위 범주 중 공리 추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한 이유로서 대학생을 포함한 다른 집단과 달리 공익이 최우선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들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 외에 다른 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 연구에 비추어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점들이 일반화되기까지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첫째로는 작은 표본으로 인하여 통계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표본을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공무원의 경우 여자 응답자의 수가 적어 성별에 따른 비교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지향 선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보았던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의 성차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제한점으로는 공무원 집단에서의 갈등상황이 주로 공적 상황으로 편향되어 있어 공무원 집단 안에서의 갈등 상황에 따른 차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은 연구자가 대학생들이 갈등상황에 있어서 사적 상황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무원들에게는 공적 상황에서의 갈등상황을 회상하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들은 사적 상황과 공적 상황을 골고루 언급하여 이러한 연구자의 선부른 대비책이 본 연구에서 오히려 제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경험한 갈등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갈등상황에 대한 분석 및 갈등해결에서의

지향선택에 대한 경향과 지향의 하위 범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백혜정, 이순목 (2002).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판단: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 57-79.
- 이아현 (1998). 배려의 윤리와 도덕판단의 지향성. *교육심리연구*, 12, 151-178.
- 정미연, 정옥분 (2001).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 187-204.
-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2002). *동양심리학* (pp.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Baek, H. J. (2002). A comparative study of moral development of Korean and British childre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 373-391.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s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els, J., D'Andrea, M., & Heck, R. (1995). Moral development and Hawaiian youths: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90-93.
- Feingold, A. (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29-256.
- Garmon, L. C., Basinger, K. S., Gregg, V. R., & Gibbs, J.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stage and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2, 418-437.
- Gibbs, J. C., Arnold, K. D., & Burkhart, J. E. (1984).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55, 1040-1043.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 223-237.
- Johnston, D. K. (1988). Adolescents' solutions to dilemmas in fables: two moral orientations-two problem solving strategies, In C. Gilligan, J. V. Ward & J. M. Taylor (Eds.) *Mapping the Moral Doma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yons, N. P. (1983). Two perspectives: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 125-145.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Pratt, M. W. (1985, August). Sex differences in moral orientations in personal and hypothetical dilemmas? Don't forget those old outcasts of content and process. In C. Blake (Chair), *Gender difference research in moral development*.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Tietjen, A. M., & Walker, L. J. (1985). Moral reasoning and leadership among men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82-992.
- Walker, L. J. (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29, 113-124.
- Walker, L. J., de Vreis, B., & Trevethan, S. D. (1987). Moral stages and moral orientations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58, 842-858.
- Walker, L. J., & Moran, T. J. (1991). Moral reasoning in a communist Chinese socie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 139-155.

The use of moral orientation of Korean adults in their experienced moral dilemmas

Baek Hye-Jeong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use of moral orientations of 60 Korean adults(40 university students and 20 public servants) in their experienced moral dilemmas based on Gilligan's theory of moral orientations. The researcher has explored what kinds of dilemma situations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what they had oriented to solve the dilemmas and what sub-categories had appeared in each orientation through analysing the participants' answers. As results, the dilemma situations that the participants had reported seemed to have common factors and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the personal situation, the impersonal situation and the mixed situation. Also, the university students did not show gender difference in the use of moral orientations and both groups of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public servants tended to choose care orientation more than justice orientation. However, a group difference was found in the use of moral orientations across the dilemma situations. When exploring the contents in each moral orientation, the researchers has divided them into several sub-categories and found that the preference of the sub-categories differed across the groups. The researcher tried to explain these results in terms of cultural influences, dilemma situ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Keywords: moral orientation, care orientation, justice orientation, dilemma situation